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책자형 선거공보

국민의힘
대구시의회의원선거
달성군 제1선거구(**화원·가창**)

준비된 경험 검증된 실력!

현,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

2 하중환

대구시의원선거 (화원·가창)후보

[이사람] 하중환 대구시의원, 조례로 사람을 기억하게 만든 정치

“조례는 기록이고, 기록은 기억이 된다”

대구시의회에서 하중환 의원을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하나 있다. ‘소통의 달인’. 호탕한 웃음과 따뜻한 말투로 민원인을 맞이하고, 공무원과는 막힘없이 소통한다. 정치는 사람의 일이라는 점에서 그의 의정 스타일은 늘 사람 냄새가 난다.

하 의원은 8년간 달성군의원을 지낸 이후에 9대 대구시의회에 입성했다. 그의 발자취는 지역민과 행정 사이의 ‘다리’가 되어주는 데 집중돼 있다. 단순히 민원을 받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서,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데 집요하게 몰입한다.

기억나는 건, 시정질문에서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던 때다. “무책임한 방치로 남을 수는 없다”며 대구시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한 하 의원의 목소리는 단순한 질문을 넘어 지역 미래에 대한 요청이었다.

또, 관광 활성화의 사각지대였던 ‘야간관광’에 주목해 「대구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했다. 5년 단위 계획 수립과 전담 위원회 설치, 사업 추진의 근거를 담아낸 이 조례는 단순한 한 줄짜리 홍보성 말이 아닌, 지역경제 회복의 틈새 전략이었다.

하지만 그보다도 기자의 마음을 뭉클하게 한 건, 그의 또 다른 조례 발의 사례였다. 지난해 친구의 생명을 구하다가 숨진 故 박건하 군에게 ‘의로운 시민’ 칭호가 수여됐다. 바로 하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실제로 적용된 첫 사례다.

그 조례는 말 그대로 ‘기억하게 만드는 법’이었다.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은 젊은이를, 대구시가 공식적으로 기리고 기억하고 예우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여기에 하 의원은 그저 “정당한 희생은 이름 없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고 싶었다”고 말했지만, 그의 입법은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선 ‘사회적 기념비’가 됐다.

이 같은 실무적 성과 외에도 그는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 전반의 조율자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은 물론, 시의회 내부의 갈등을 중재하고 협치의 틀을 다지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운영위는 단순한 의회 내부 조직이 아니라, 의정 활동의 리듬과 방향을 조율하는 심장부다. 하 의원은 이 자리에서도 특유의 소통력과 합리성으로 ‘균형 있는 리더십’을 보여줬다. 때로는 여야를 아우르고, 때로는 행정부를 향해 단호하게 견제하면서도 실질적 해법을 찾아내는 모습이 인상 깊다.

의정은 때로 말보다 조용한 성과가 더 중요할 때가 있다. 하중환 의원의 조례 하나하나는 그 조용한 울림을 갖는다. 정치인이 법으로 사람을 기억하게 만든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의 의정 활동은 단순한 숫자나 통계보다, 오래 남을 ‘사람의 이야기’로 기록될 것이다.

웹플러스뉴스미디어 2025.07.18. 기사내용(김재혁기자)

준비된 경험
검증된 실력!
2
대구시의원선거 (화원·가창)후보
하중환
현,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

폭넓은 시야와 추진력은 늘 시민의 마음곁에서 하중환은 함께 호흡해왔습니다!

嶺日新聞 2025년 12월 17일 수요일 008면 정치

하중환,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안 발의

하중환 대구시의원(달성군1·사진)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구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 시의원은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피해 주택의 유지 보수 비용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자금 및 이주비 지원, 피해 주택의 유지 보수 비용 지원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하 시의원은 "올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됐으나, 이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대구시가 적기에 개정하지 못하면서 조례 유효기간이 지난 7월 만료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하 시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과 일반 전세피해 임차인에게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18일 본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김은경 기자

하중환 대구시의원 대표발의 14건

-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음식관광 활성화 조례안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등

영남일보 2024년 11월 6일 수요일 027면 사설·칼럼

사람이 몰려야 도시가 산다…야간관광 활성화에 주목

활기 넘치는 도시의 낮과 밤은 각각의 매력이 있다. 생산과 소비가 적절히 어우러지면서 역동성을 주고 받는다. 정주인구와 생활인구의 유기적인 진·출입도 자연스럽다. 이런 흐름은 도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에너지로 확대 재생산되기 마련이다. 외지인의 발길을 이끌고 그들의 소비를 촉진하는 방법으로 관광만 한 것이 없다. 세계적인 명성을 누리고 있는 도시치고 야간관광 명소가 없는 곳은 드물다. 그게 자연이든, 도심이든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하는 순간, 또 다른 경쟁력이 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은 인구소멸에 대한 불안과 경기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 돌파구를 찾기 위해 무던히 각자도생하고 있지만 결과는 신통찮다. 이런 가운데 양양이나 강릉 등 일부 지역은 지역 정체성으로 무장한 로컬 콘텐츠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서핑의 성지로 자리 잡은 양양의 경우, '불법이 아니면 무엇이든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공무원의 절박한 현실의식이 한몫을 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포인트를 제대로 공략하고 민·관이 협력해야 승산이 있다.

체류형 관광객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중환 대구시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를 방문한 관광객의 체류시간은 1.2일, 관광소비액은 10만7천463원으로, 2019년 1.4일, 12만1천원보다 줄었다. 야간관광 활성화 등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대목이다. 지난 7월 대구 최초로 '동성로 관광특구'가 지정됐음에도 불구, 자축하는 현수막 외엔 뚜렷한 변화를 감지하기 어렵다. 야간관광에 대한 별도의 조례 제정을 포함, 행정·재정적 지원과 함께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점이다.

공동발의 130건

- 기획행정, 문화복지, 경제환경, 건설교통, 교육 전분야에 걸쳐 다양한 의제들을 동료의원들과 협업하여 공동발의 추진!

시정 질의 8건

- 화원 LH부지 개발 방안 마련 촉구 등과 같은 지역현안과 관련하여 시정정책에 대한 질의!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안 4건

- 대구시의회 하중환 운영위원장 :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예방정책 전국확대 등 건의

영남일보 2025년 6월 13일 금요일 004면 정치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하중환 대구시의원

하중환(사진) 대구시의원이 12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317회 정례회에서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대구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4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아동의 25.9%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으로는 맞벌이 부부 증가로 인한 훈육 시간 부족, 훈육 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 스마트폰 대체 놀이 환경 미비 등이 지적됐다.

개정 조례안은 스디지털기기 및 과의존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영유아의 보호자·보육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 및 놀이 프로그램 개발 근거 마련 △상위법에 부합하는 영유아의 정의 수정 등을 골자로 한다. 또, 영유아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의 근거도 담았다. 하 시의원은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기기의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영유아들의 과의존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정치는 말의 성찬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구체적인 실천이어야 합니다.

嶺日新聞 2025년 4월 24일 목요일 010면 사회

친구 구하다 숨진 중학생, 의로운 시민 되나

하중환 의원, 개정조례안 발의
대구 첫 '의로운 시민' 탄생 기대

대구 달성군 다사읍 한 저수지에서 친구를 구하다 목숨을 잃은 중학생 A군(매일신문 1월 14일 보도)이 대구 첫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3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하중환(사진) 대구시의원(달성군1)이 지난달 10일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이날 문화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시의 별도 심의를 생략해 의로운 시민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다 세분화된 위로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달성군 다사읍의 한 저수지에서 놀다가 물에 빠진 친구 4명을 구하던 중 숨져 의사자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A군의 사례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뜻깊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A군이 의사자로 인정될 경우 곧바로 '대구시 의로운 시민'으로 지정돼 최초의 의로운 시민이 탄생하게 된다. 이번 조례안은 내달 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윤정훈 기자 hoony@imaeil.com

嶺日新聞 2025년 10월 28일 화요일 008면 정치

"30여년 방치 화원 LH 부지, 용도 변경 시급"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 촉구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달성군1·사진)은 27일 대구시를 상대로 한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30여 년간 방치된 달성군 화원읍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지의 신속한 용도 변경과 개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하 위원장은 "서부정류장은 화원읍 명곡택지 개발지구 이전이 확정됐으나 28년이 지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며 "그 결과 해당 부지는 당시 186억원에서 현재 400억원으로 지가가 급등했고, 매년 9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등 시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위원장은 "달성군은 부지개발 관련 민원에 시달리고 있고, 공공기관 유치 등 대형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LH 또한 투자금 회수 지연으로 재정적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구시는 신속히 용도변경을 단행해 달성군이 부지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정훈 기자 hoony@imaeil.com

달성군의원 8년, 대구시의원 4년!
경험으로서 쌓아온 치열한 행정 감각과
소통과 협치의 자세로
대구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 쏟아붓겠습니다.

대구의 일상이 매일매일 더 나아지고 있음을
시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행동하는 뚝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영남광부 2025년 7월 24일 목요일 023면 사설·칼럼

그를 기억하는 우리의 자세

특별기고

하 중 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

올해 1월, 대구 달성군 한 저수지. 겨울 한복판의 찬물 속에 한 어린 중학생이 망설임 없이 몸을 던졌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친구들이 물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는 세 명의 친구를 구해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돌아오지 못했다. 무모한 용기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언한다. 그것은 '본능적인 의로움'이었다. 타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은 사람에게,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할까. 우리는 그저 고개 숙여 경의하고, 두 손 모아 존경해야 한다.

국가는 그의 숭고한 희생을 외면하지 않았다. 지난 5월22일, 보건복지부는 박 군을 공식 '의사자'로 지정했고, 30일 대구시는 그를 첫 번째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했다. 유족에게는 위로금이 지급됐다. 필자는 유족을 직접 찾아가 '의로운 시민 증서'를 전수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입법자로서가 아니라, 한 시민으로서 머리를 숙였다. 그 순간, 정치적 언어나 절차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오직 감사와 경외의 감정만이 진실했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한 사람의 용기를 기리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의로운 시민 제도'가 드디어 제 기능을 하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이다. 그간 사회는 의로움에 무심했다.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이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거나, 세상에 잊히는 일이 적지 않았다. 선한 행동이 외면받는 사회는 결코 건강할 수 없다. 제도를 만들고 정비한 이유는 분명하다. 용기 있는 선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공동체가 끝까지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다. 사회가 의로움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누가 다시 선을 선택하겠는가.

사실 '의로운 시민'을 기리는 제도는 해외에서도 이미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미국에는 1904년,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가 창설한 '카네기 히어로 기금'이 있다. 생명의 위협 속에서 타인을 구조한 시민에게 훈장과 금전적 지원, 자녀 교육까지 제공한다. 영국의 '왕립인명구조협회'는 해상 구조 활동을 이끄는 민간 자원봉사 조직으로, 구조자에게 훈장과 예우를 아끼지 않는다. 이들 제도는 공통적으로 하나의 메시지를 던진다. '의로운 시민'이란 단순한 표창이 아니라, 사회가 지켜야 할 윤리적 계약이라는 사실이다.

이번 조례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의로운 시민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일은 공동체의 도덕성과 건강성을 재확인하는 과정이다. 시는 박 군과 같은 숭고한 사례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누구나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추모 공간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그의 이야기를 교육 자료로 만들어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것이 살아 있는 우리가 박 군을 기억하는 방식이며, 그의 의로움을 '사회적 자산'으로 승화시키는 길이다.

우리는 일상에서 자주 '정의'와 '용기'를 말한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는 모른다. "당신은,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 불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선뜻 답할 수 있는 이가 얼마나 될까. 그렇기에 더욱, 우리는 박 군을 기억해야 한다. 기억하는 일조차 버거운 이 시대에, 그의 선택은 묻고 고개했다. 그를 예우하는 일은 곧 우리 부족함을 대신하는 일이다. 그의 이야기는 단지 한 중학생의 영웅담이 아니다. 이 사회가 어떤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일깨우는 나침반이다. 그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을, 우리 모두 잃지 않았으면 한다.

- 2023 대한민국시도의회 우수의정대상
- 2023 대구경북 올해의 의원상

준비된 경험
검증된 실력!

2

대구시의원선거 (화원·가창)후보

하중환

현,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

더 나은 내일, 대구경제를 살리고
보수의 심장 대구를
지키고자 다시 부름을 받았습니다.

추경호 대구시장후보
수석대변인으로 하중환 임명!

영남일보 2026-05-04 (월) 004면

추경호 캠프 소통 사령탑에 '10년 동지' 하중환

선대위 수석 대변인 기용
'현장형 정무 전문가' 입지
민심 꿰뚫는 전략가 평가

6·3지방선거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의 소통 책임자인 수석 대변인으로 하중환〈사진〉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낙점했다. 199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계 입문 시절부터 대구 정치권의 굵직한 역사를 현장에서 함께 지켜본 하 수석대변인은 이제 '10년 동지'인 추 예비후보의 본선 승리를 견인할 핵심 전략가로 전면에 나선다.

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하 수석대변인은 대구 달성군 정치권에서 '현장형 정무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다져왔다. 그의 정치적 자양분은 실전에서 길러졌다. 1998년 박 전 대통령이 달성군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할 당시, 지근거리에서 일정을 총괄하며 '그림자 보좌'를 해온 수행실장이었다.

추 예비후보와의 인연은 2016년 제20대 총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추 예비후보가 고향인 달성군에 출사표를 던졌을 때부터 하 수석대변인은 가장 신뢰받는 조력자로서 정무적 판단의 기틀을 닦았다. 이후 10년간 추 예비후보의 의정 활동과 경제부총리 시절에 함께 호흡을 맞췄다. 단순한 참모 기능을 넘어 추 예비후보의 정치 철학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대변하는 '복심(腹心)'으로 자리매김했다.

추 예비후보가 본선 가도를 앞두고 그를 전격 기용한 배경에는 하 수석대변인이 가진 베테랑다운 실무 역량이 자리 잡고 있다. 하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대구시당 대변인직을 네 차례나 역임하며 지역 언론 환경과 민심의 흐름을 꿰뚫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날카로운 정세 분석과 부드러운 소통 능력을 겸비해 캠프 내에서는 이미 '준비된 사령탑'으로 통했다.

이번에 꾸려진 대변인단 역시 하 수석대변인을 중심으로 하태균 대구시당 대변인, 김홍석·김시숭·배창규 전 시당 대변인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하 수석대변인은 이들을 진두지휘하며 추 예비후보의 정책 비전을 잘 가공해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중책을 맡게 된다.

최근 열린 임명식에서 하 수석대변인은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를 모두 현장에서 승리로 이끌었던 노하우를 이번 선거에 아낌없이 쏟아 붓겠다"며 "보수의 자존심인 대구가 중요한 정치적 기로에 서 있는 만큼, 추 예비후보의 진심과 혁신안이 시민들의 가슴에 깊이 파고들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언론 사이의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한 당직자는 "하 수석대변인의 전면 배치를 두고 '추 예비후보가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필승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하 수석대변인의 합류로 캠프의 메시지 장악력과 대언론 대응 수준이 한 차원 더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지금 우리 국민의힘은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거대 여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가
민생을 위협하고 있고,
안으로는 보수의 심장인 대구마저
새로운 혁신과 화합의 길을 모색해야만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당과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대구는 언제나 대한민국의 중심을 잡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해왔습니다.

저는 대구시의회 의원으로서 이 엄중한 시기에 뼈를 깎는 성찰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아울러 무너진 보수의 가치를 현장 정치로 복원하고, 대구시장후보와 시정의 최전선에서
오직 대구시민을 챙기는 실용적인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겠습니다.

신뢰·화합·소통의 적임자!! 하중환이 앞장서겠습니다!

지역의 현안사항들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헌신적으로 앞장서 추진하겠습니다!

달성! 대구 앞으로!

화원읍

- 대구교도소후적지개발
- 화원설화LH부지개발
- 화원유원지일원명품화사업
- 화원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
- 달성에어돔다목적구장건립
- 화원명곡체육공원내유소년축구장조성
- 화원시장활성화(QR 정보제공, 식객패스도입등)
- 달성청년복합타운건립
- 달성문화예술회관건립
- 천년전왕의정원, 모두의'화원국가정원' 조성

가창면

- 가창면행정복지센터이전신축및다목적체육관건립
- 가창면행정복지센터후적지개발
- 가창면민복지회관건립
- 농기계임대사업장가창분소설치
- 가창최정산구) 군사시설활용주제공원조성
- 가창동부순환도로(단산~옥분) 개설
- 가창채석장개발사업

깨끗하게! 유능하게!
화원·가창이 올라갈 시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검증된 해결사!

준비된 경험
검증된 실력!

대구시의원선거 (화원·가창)후보

2 하중환

현,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

국민의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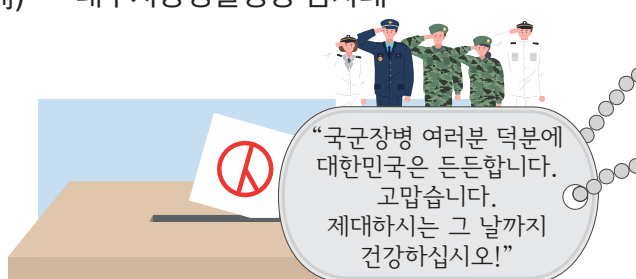
하중환의 검증된 열정의 길~

경력

- 대구소프트웨어고 운영위원장(前)
- 제7대 달성군의회 전반기 부의장(前)
- 제8대 달성군의회 후반기 부의장(前)
-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대구시 공보단장(前)
- 제9대 대구시의회 의원(現)
- 국민의힘 대구시당 대변인(前)
- 대구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現)

상훈

- 2023 대한민국시도의회 우수의정대상
- 2023 대구경북 올해의 의원상
- 대구시교육감 감사패
- 대구지방경찰청장 감사패



국민의힘

대구시의회의원선거
달성군 제1선거구(**화원·가창**)

사전투표 5월29,30일
본투표 6월3일
신분증(주민등록증,복지카드,운전면허증,학생증 중)지참

현)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

기호 2 하중환

신뢰·화합·소통의 적임자!!

선거사무소 I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인흥길11, 4층 전화 I 053-639-2144